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대한 전망

- 포르투갈은 자국 은행들의 국채보유 과다로 국채 만기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이 어렵게 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됨에 따라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함.
 - 포르투갈의 5년 만기 국채금리는 4월 4일 9.91%까지 상승하였고, 정부의 지급불능 가능성은 40%까지 상승함.
 - EU 관계자들은 구제금융 규모는 최대 750~9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함.
- 그런데 Fitch는 구제금융이 포르투갈의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.
 - IMF와 EU는 포르투갈 금융시장의 문제를 유동성보다는 정부의 지급불능에 있다고 보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 - IMF와 EU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재정긴축을 통해 포르투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것임.
 - 더욱이 유로지역의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포르투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포르투갈과 경제상황이 유사한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신청 이후 자금조달 환경과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경기상황이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 - 포르투갈은 GDP 대비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각각 80%대, 8%대를 기록하고,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며, 높은 실업률과 재정 긴축으로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그리스, 아일랜드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.
 - 2011년 3월 말 현재 그리스, 아일랜드의 국채금리는 구제금융 신청 직전과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데, 이는 시장이 이들 국가의 지급불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동성 확보가 손조롭지 못함을 시사함.
 - 그리스, 아일랜드는 재정긴축으로 성장가능성이 위축된 상황이며 여기에 유동성 부족까지 겹쳐지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나타나지 못함.

(Wall Street Journal 4/8, Financial Times 4/5)